

인간과 하천

3

River & Culture



김 현 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문연구실
실장, 책임연구원
(hjkim@kict.re.kr)

북청 물장수의 꿈

1. 내 고향 북청

누구나 고향이 있다. 태어나서 자라고, 돌아갈 수 있는 정겨운 기억이 있는 곳 말이다. 나 또한 태어나서 자란 곳이 없을 리 만무하지만, 서울의 한 북판이고 떠난 지도 오래되어 고향과 같은 살가운 맛은 없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향만큼이나 귀중한 곳이 나에게도 있다. 지금은 갈 수 없는 곳이지만, 부모님의 고향이고 내 마음의 고향인 함경남도 북청군 신포읍 육대리가 바로 그곳이다. 현재는 신포시로 행정구역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북청군에서 북청 다음으로 큰 읍내이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항 중의 하나

이었다. 신포는 대북 경수로 사업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다 중단된 곳이기도 하다. 한국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을 나섰고 그 일행 중에는 갓난쟁이 아이를 등에 업은 부모님 일행도 끼어 있었다. 남으로 내려오는 작은 배에 몸을 의지하셨다고 한다. 잠시, 며칠만 머무르면 되리라는 기대는 벌써 반세기가 넘었고, 꿈에서나마 고향집을 보실 수 있도록 고향 어른들께서 주립하여 만드신 향원(鄉園)에 아버님을 모신지도 몇 해가 지났다.

신포는 명태의 집산지로도 유명하였다. 해방 이전만 하여도, 당시 전국의 생태(생태를 말린 것이 명태이고, 얼린 것이 동태이다) 수확량의 대부분이 이 항구 도시를 통해서 출하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인지, 어렸을 적부터 유달리 동태찌개를 비롯한 생선 음식을 많이 먹었고 지금도 즐겨먹는 음식중의 하나이다. 아버지와 삼촌께서는 이복식으로 끓인 동태찌개를, 그 커다란 머리뼈까지 남김없이 발려 드시곤 하였다. 마치 분쇄기가 조각조각 분쇄물을 뱉어내듯이 두 분은 동태의 머리뼈를 잘게 뺏아 수북이 쌓아놓곤 하셨다. 유달리 제사상이나 차례상에 생선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바닷가 마을의 유래였으리라. 시집오기 전에는 생선을 자주 먹지 않았다는 아내도 차례상에는 생선을 넉넉히 준비하고, 생선뼈도 제법 잘 발려낸다. 아이들도 생선을 즐겨 찾는 것을 보니 피는 못 속이나 보다.

이야기가 옆으로 새어나갔다. 집안 이야기를 하려던 것이 아니었는데...

대학을 들어와 “물(수자원, 수문학)”이란 학문을 접하게 되면서, 고등학교 국어시간에 배웠던 김동환 시인의 “북청 물장수”는 작은 나침반 역할을 하여 주었다. 김동환은 함경북도 경성에서 태어나, 고향 가까운 곳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있었던지, 북청 물장수란 시를 1904년에 동아일보를 통하여 발표하였다. 역적스러움과 강인함의 상징처럼 북청 사람들은 조선 말엽부터 고향을 떠나 프론티어의 정신을 이어왔고 그 정신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 북청 물장수를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자 틈틈이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모아보았다.

2. 북청 물장수의 유래 ¹⁾

북청 물장수의 기원은 1800년대 초(순조 혹은 철종)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당시 권세가의 저택에 북청 출신의 김서방이 물을 길어댄 일이 있다고 한다. 한양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집집마다 좋은 우물을 가질 수는 없었다. 도성을 관통하여 흐르는 하천은 청계천인데, 수량이 풍족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수도 역할을 하고 있어서, 식수로 사용하기는 어려웠다. 고작 비온 뒤에 빨래나 할 수 있었다. 당시의 사대부와 관료들은 궁궐을 사이에 두고 살았으며, 몰락한 양반집안과 중인들은 남산 자락에 모여 살았다. 산수 좋고, 비교적 식수

사정이 좋았을 지역에 권세가들이 모여 산 것이다.

북청 물장수가 본격적으로 규모를 갖추고 공동작업을 시작한 것은 고종 연대라고 한다. 1866년(고종 5년) 김서근이라는 북청 출신의 사람이 돈화문앞 단칸방에서 기거하면서 과거를 보려고 상경하는 고향 선비들의 시중을 들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물을 지어 날랐는데, 삼청동 공원 안에 있는 약수터 물을 길어 왔다. 물통과 물지게를 이용하여 풍족하게 물을 쓰면서 이웃 주민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는데, 그 소문은 이웃으로 번져가 물을 배달해 달라는 집들이 불어났다. 그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고향에 연락하여 몇 친구들을 불러 올려 “물 도가(都家)”를 만들었다. 그는 물장수로서 돈을 버는 한편, 아끼내며 공부로 문과 초시에 합격하여 고향에 돌아가 서당의 훈장을 하다가 다시 상경해서 북청 사람들을 중심으로 상점을 만들었다. 이것이 북청 물장수의 시작이며 “수방도가(水房都家)”의 원조이다. 북청 물장수의 수방도가는 점차 장안의 명물로 등장했으며, 여러 곳에 하나 둘 생겨났다.

북청 물장수들의 물상점은 그 후 수상 조합으로 발전하여 1인당 10호씨의 물공급 구역을 담당하였으나 1908년에 서울의 상수도가 준공되면서 서서히 세력이 약화되었고 1914년 이후 북청 물장수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림 1) 가재우물(서울육백년, 대학당, 1994)
인왕산 기술 옥인동에 소재한 문곡 김수형의 별장 청취각 아래에 있는 우물이다. 가재우물은 문곡의 넷째 아들인 김창업의 아호 노가재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북청 물장수가 물을 길던 우물도 이와 비슷하였을 것이다. 줄지는 양철 물통이 물을 길는 차례를 알려주고 있다.

1) 북청 물장수에 대한 기록은 북청군지(1994)와 서울육백년사(<http://seoul600.visitseoul.net>)를 참고하였다.

서울600년사에도 물장수와 상수도사업의 확장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 물장수 조합의 규모와 상수도 사업에 따른 쇠퇴과정을 적고 있다.

물장수가 하나의 직업이 되자 점차 10~30호 정도씩, 각 물장수마다의 단골구역이 생기고 각자의 단골구역을 서로가 침범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이루어졌으며 이 급수구역(혹은 수좌구역, 水座區域)은 그 구역마다의 노임의 정도에 따라 양도가격이 형성되어 하나의 무형재산권이 되었다고 한다. 물장수의 수가 늘고 급수구역이 정해졌으며 일정구역의 급수권이 매매의 대상이 되자 물장수들의 조합 즉 수상조합(水商組合)이라는 길드가 형성되고 급수구역·매도가격을 인준하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부동산매매 때에 등기문권이 오가는 것처럼 수좌인준증권(水座認准證券)이라는 것을 발급하여 급수권 양도이전의 공증서류로 했다는 것이다.

윙희 2년(1908) 8월에 서울상수도가 준공을 보자 코리안 워터 워크사(Korean Water Works Co.)는 이 물장수들이 실직함으로써 생기는 혼란에 대비하여 시내에 220전(鎊)의 특설공용전(特設公用栓)을 설치하고 수상조합과 계약을 맺어 수상(水商)들이 이 공용전에서 물을 받아 종전대로 각 가정에 급수하고 물사용료를 납부토록 조치하였다. 그런데 수상들이 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났었다. 그래서 다음해 10월 말부터는 회사의 직영으로 바꾸어 버렸다. 미리 일반 물 수용자에게 물표를 팔고(한집에 1전씩), 공용수전(公用水栓)이 있는 현장에 물표를 가지고 오면 회사 직속의 인부가 수전(水栓)을 열고 직접 급수해 주는 방법을 취한 것이다. 그러자, 수상조합 간부와 물장수들이 합세하여 회사 직속의 인부를 협박하고 수전 자리에 모인 물수용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해산시켰으며 회사에 모여와서 돌을 던지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는 사건을 일으켰고, 회사측은 수상조합과 다시 협의를 거친 후 조합대표를 바꾸어 윙희 4년(1910) 1월 1일부터 다시 종전처럼 수상조합에 물을 공급하기 시작했었다. 한일합방 후 서울의 상수도 경영권이 총독부로 이관된 후에도 수상조합을 공용수전 지정판매인으로 하는 체계는 당분간 그대로 답습되었다. 총독

부 경무총감부는 1912년 7월 5일에 경성수상조합규약을 인가하여 수상조합을 공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1914년에 이르러 수상조합의 물사용료 수납이 부실할 뿐 아니라 물장수에 의한 급수는 위생상으로 좋지 않다고 하여 수상조합정리비 37,900여원을 지출해서 수좌권소유자(水券所有者)의 손실보상과 물장수에 대한 실업구제금으로 하고 수상조합은 폐지해 버렸다. 이로부터 일반 물 수용자는 공설공용전(公設公用栓)에 가서 물표를 바꾸어 물을 공급받게 된 것이다.

이후로는 서울에서 북청 물장수를 볼 수 없게 되었다.

3. 북청 물장수의 일화

북청 물장수는 무식한 노무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소농, 중농 이상의 가정 출신으로 한학은 물론 산학문에도 기초과정은 마친 사람들이었다. 비록 물지게를 지고 집집마다 물을 길러 나르지만 문맹인 아낙네들의 편지를 대독해 주거나 대필해 주는 선비들이었다. 물론 그들이 생계나 영리를 위하여 물지게를 진 것은 아니다. 오직 그들은 자기들의 자제를 비롯하여 친척, 친지들을 가르친다는 일념으로 물지게를 진 것이다. 교육을 제일의 사명으로 여기는 북청인의 기질을 몸소 실천으로 옮긴 것이 북청 물장수이다. 면학을 위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밖에 많은 이들이 서울로 오면 이 "수방도가"를 거쳐 갔다. 헤이그에서 순철한 이준 열사도 17세에 상경하여 이 수방도를 거쳐 갔다(이준 열사는 북청군에서 1859년에 태어났다. 지금도 북청군의 고향 모임은 북한산 자락의 이준 열사 묘역에서 매년 열리고 있다).

당시 북청 물장수는 종가집의 장손들이 가장 많았고 또한 이들은 자기 직계만의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고, 4촌 혹은 조카 등 집안사람들의 교육비 조달을 위해 물장수를 했다. 이런 사연에서인지 모르지만 당시 전국에서 가장 교육수준이 높았던 곳이 북청군이었다. 이렇듯 이들은 자손의 교육을 위해서 그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여름이나 겨울이나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달리던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전통은 일제 때까지 이어지다가 당시 한 물장수의 아들이 경성제대 예과(현 서

을대학교 의과대학)에 수석 합격한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어 '북청 물장수' 라는 말이 세상에 널리 회자되었다.

4. 구한말 이방인의 눈에 비친 물장수

100년 전의 우리들의 생활 모습을 이방인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군함과 대포로 나라의 빗장이 열린 후에 다양한 목적으로 이방인의 방문이 이어졌다. 침탈을 위한 조사를 위하여 조선팍도를 돌아보기도 하였지만, 학문적 호기심이나 당시의 첨예한 국제관계를 현장에서 보기 위하여 방문한 분들도 있으며 그들이 보고, 듣고, 겪은 내용이 책으로 소개되었다.

미국의 퍼시벌 로웰은 1883년에 12월에 고종황제의 초청으로 조선을 방문하였다. 그가 1888년에 출간한 "Chosun: The Land of Morning Calm"은 이후로 조선을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이 말의 의미는 조선(朝鮮)이란 한자를 풀이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가 인천의 제물포를 통하여 조선을 방문하였을 때 도성에 들어오는 날의 아침 풍경으로부터 받은 첫 인상도 강하게 작용하였던 것 같다. 그는 조선의 아침을 동환의 경지에 놓여 있으며, 희미한 안개는 원경을 굽속같이 보이게 했다고 하였다. 그는 방문 기간 동안,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지리 등 각종 풍속을 그의 기행문에 담아내었다. 그 중에서 장안의 물장수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 있다.

"무거운 짐 때문에 행인들을 의식할 여유가 없는 또 한 축의 사람들이 있다. 바로 물지게꾼이다. 물지게 양 끝에 걸린 양동이의 무게 때문에 생긴 반동으로 물지게꾼의 걸음은 빨라질 수밖에 없으며, 넘칠 만큼 물을 가득 채운 탓에 물은 양동이 밖으로 튀어나와 그의 뒤에는 놀상 얼음 제방이 남는다.

그들이 물을 길어 올리는 우물은 시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있다. 큰 길에서 벗어나 통행로 바로 옆에 자리잡은 우물은 돌로 쌓은 원형의 샘으로 주위보다 2피트 정도 높다. 물 길는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인

가와 아주 가깝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직업적인 물지게꾼을 비롯해 일반 가정집의 여종 등이 하루 종일 긴 행렬을 이루며 이곳을 오고 간다(내 기억 속의 조선, 조선 사람들, 퍼시벌 로웰 지음, 조정철 옮김, 예담, 2001)."

그는 무거운 물지게에 의해 흔들리면서도 빠르게 발걸음을 옮기는 물장수의 모습을 그려냈고, 방문한 계절이 한 겨울이라서 물장수가 흘린 물이 바로 얼어버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가 발견한 우물은 우리들 집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돌로 주변을 쌓은 우물이었으며, 오랜 방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물가는 물장수뿐만 아니라 아낙네들의 모임터였음을 그는 눈치채고 있었다.



(그림 2) 물장수(사진으로 본 백년전의 한국, 가톨릭출판사, 1997)

새비지 랜도어는 1890년에 조선을 두 번째 방문하였다. 그는 젊은 시절을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데 보냈는데, 그의 첫 방문지가 극동이었다. 일본을 거쳐서 중국과 조선을 방문하였고 조선은 두 번을 찾았다. 그는 여행하면서 그림도구를 가지고 다녔다. 아래의 물장수 그림은 그가 직접 그린 것이다. 조선을 방문하였을 때의 기록을 책으로 남겼으며 물장수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있다.

"교양 없고 거칠다는 점에서 물을 길어 오는 사람은 거의 마부와 같다. 노동량에 비해 매우 박한 수입을 올리지만 묵묵히 감내하는 그의 인내심은 확실히 대단하며 찬사를 받을 만하다. 그가 하는 일은 아침부터 밤까지 물을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물을 배달해 주는 것이다. 그 일은 여름에는 그럭저럭 할 만하지만 겨울에는 문제가 다르다. 왜냐하면 이때



〈그림 3〉 물장수(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집문당, 1998)



〈그림 4〉 물장수(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2005)

가 되면 거의 모든 샘은 얼어붙어 버리는데 물을 우물에서 길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팔을 자유롭게 흔들 수 있도록 한 독특한 장비를 지고 다닌다. 이것은 한 번에 두 양동이의 물을 져 나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장비는 폴란드 여인들이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스위스의 여러 지방에서 우유를 운반하는데 쓰는 것보다는 훨씬 복잡하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것이다.

겨울에는 물통이 우물에서 길어 올려지자마자 얼음 통으로 변하며 그때 추위에 손 전체가 뜨는 바람에 피가 나는 이들을 보면 참으로 가엾기 그지없다. 그들은 물을 젖을 때 상당한 속도로 달리며 그들의 보조와 시간을 맞추기 위해 헤! 헤!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충돌을 피하는데 놀라운 판단력을 보여 준다. 그들은 왕국 내에서 최하의 부류로 간주되며 복장의 면에서 어린이나 미혼 남자와 같은 특권을 약간 누린다. 예를 들어 그들은 국상 기간에도 대개 밝고 푸른색 상의를 입는다. 그들이 일할 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모자를 쓰지 않으며 어떤 때에는 머리피도 두르지 않고 대신 머리에 푸른 수건을 두른다. 그들은 마부들이 하는 것처럼 긴 파이프를 늘 등 뒤에 꽂고 다닌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새비지 랜도어 지음, 신복룡/장우영 옮김, 집문당, 1999)

또 다른 방문객이 있다. 스웨덴 기자인 아손 그랩스트인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러일전쟁을 종군하기 위하여 일본에 체류하다가 1904년에 상인으로 위장하여 조선을 방문하였다. 그는 기자의 예리한 통찰력과 필체로써 조선의 풍물과 주변 열강에 처한 조선의 사정을 소개하였다. 그의 책 속에도 물장수에 대한 글이 보이는데, 물장수의 나무 물통이 서서히 양철통에 밀려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서구 열강의 조선 침략에 따른 사회적 변화의 하나라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물을 운반하는 직업은 비록 힘든 노동이지만 수입이 좋아 매우 인기가 있다. 보수도 좋을 뿐 아니라 백성이나 곡예사, 마술사보다 더 귀하게 평가되어 이런 여러 이유로 물장수들 사이에는 막강한 조합이 형성되어 있다. 물지게꾼이 되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허가를 받을 때 60원에서 100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물지게꾼을 이용하는 가정은 한 통당 20전에 해당하는 물값을 한 달 단위로 지불해야 한다. 어떤 가정에서는 하루에 20통의 식수를 사용하기도 한다. 물지게꾼 한 명이 하루에 30가정을 맡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코레아의 경제적 수준을 계산에 넣을 때 물지게꾼의 수입은 상당한 것이다. 옛날에 사용되었던 나무 물

통은 튼튼하긴 했지만 더 가볍고 용적이 큰 양철통에 완전히 밀려났다. 이렇게 되자 코레아에서 그 전통을 자랑하던 수공업중 하나가 문을 닫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게 요즘 세상사인 것이다. 새로운 것이 자꾸만 나타나고 오래된 것은 사라지며, 세상 조류에 편승하지 못하는 인간들은 나무 물통과 똑같은 운명을 맞게 된다. 지금도 코레아에서는 나무로 된 그릇이나 진흙으로 만들어진 도자기들이 쓰인다. 가정에서 식수를 운반하는 것을 담당하는 사람은 주로 아낙네들이다. 아침저녁으로 우물가에 줄서 있는 그들의 모습은 코레아 특유의 정경이라 하겠다(스웨덴 기자 아손, 100년전 한국을 걷다, 아손 그림 스트 지음, 김상열 옮김, 책과함께, 2004).“

5. 북청 물장수의 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새벽이면 물지게로 물을 채워주고 조용히 자취도 없이 돌아가는 북청 물장수의 모습에서 성실함과 강인함을 엿볼 수 있다. 멀리는 1800년대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북청 물장수의 유래는 본격적인 상수도 시설이 서울에 도입되는 1914년까지 100여년 이상을 이어왔다. 그들은 사람들의 가장 필수적인 식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무거운 물지게를 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남들은 편히 잠들고 있는 시간에 새벽의 찬 공기를 가르며 물지게를 지어 날랐다.

북청 물장수가 자기의 생활수단으로써 물지게를 진 것은 아니었다. 가족 및 일간 친척의 학업 뒷바라지를 위하여 스스로를 희생하였고, 서로 협동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로 장학회를 이루어 고향 출신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활발하게 뒷바라지를 하였다.

필자 또한 대학시절 이 혜택을 받기도 하였다.

물이 모자란다고 한다. 수자원이 고갈된다고도 한다. 기후 변화가 원인이라고도 한다. 괜한 걱정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만일을 위해서 충분한 대비를 하는 일에는 모자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청 물장수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 모든 사람과 환경에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물을 확보하고 관리하며, 기술을 개발하는 방법만이 다가올 물부족 시대를 준비하는 길이 아닐까 하며, 내일도 찾아올 북청 물장수를 기다려 본다. 🌍

북청 물장수

김동환

새벽이나 고요히 공갈을 짊고 와서
머리맡에 찬물을 와아 퍼붓고는
그만 가승을 더듬으며 멀리 사라지는
북청 물장수.

물에 젖은 꿈이
북청 물장수를 부르며,
그는 베껴베껴 소리를 치며
온 자취도 없이 다시 사라진다.

날마다 아침마다 기다려지는
북청 물장수.